목회의 프락



정용영 목사
청풍은성교회 담임

여호와 살롬!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사사기 6장 12절)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이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것입니다.(24절)

미국의 일반 국도 50번 국도는 캘리포니아주와 메릴랜드주를 잇는 국도로 4,946km 길이의 미국에서 4번째로 가장 긴 국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외로운 도로(The Loneliest Road in America)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인생도 끝없이 펼쳐진 미국 50번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하나의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상황과 걱정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환경과 문제가 바뀌어야 평안이 온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사라지기 전에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하늘의 평화인 여호와 살롬을 누리기 위해 붙잡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강은 환경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Hentity).

기드온은 미디안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 숨어 "나는 가장 작고 비겁한 자"라며 자신의 상처와 환경으로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향해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문제, 환경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평강은 문제가 사라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부르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붙깨는 평강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Trust).

우리는 미래를 다 통제하고 내 뜻대로 풀려야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드온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실을 들으면서도 계속 확실한 증거와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믿음이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 건강, 경제 문제 등 내가 꼭 붙잡고 있던 손을 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통제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잠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평강은 부재가 아니라 임재입니다 (Presence).

우리는 모든 문제와 갈등,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Problem의 해결)만을 평안의 조건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과 알제가 끝나지 않은 그 자리에서 기드온에게 "안심하라(살롬)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롬은 문제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상태(Present)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과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다면 오늘 주먹 쥐었던 손을 펴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평화의 물결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진양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살롬을 경험하는 은혜가 일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션리 구독 및 광고 문의
T. 062)367-9109 F. 062)367-9108

이주의 추천도서



저자 : 최병철 | 출판사 : 예영커뮤니케이션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평신도의 성찰과 외침

"교회가 건강해야 성도가 행복하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평신도의 시선으로 진단하고, 복음에서 회복의 길을 찾다.

●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가,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가?

● 교회는 성도를 살리고 세우는가, 아니면 지치게 하는가?

●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까지이며, 헌금과 직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상처받은 사람을 교회는 어떻게 대하는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는 한국 교회가 외적 성장과 사회적 영향력을 넘어 다시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책이다. 특히 이 책은 목회자나 신학자가 아닌, 평생을 교회와 함께해 온 평신도의 시선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저자는 교회를 밖에서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 온 성도로서, 교회가 다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편하지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들을 던진다.

이 책이 다루는 핵심 주제

이 책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피하지 않는다. 공연장 같은 예배, 목회자의 권위와 리더십, 교회 세습, 재정과 헌금, 직분과 권력, 율법주의적 신앙, 대형화와 성장주의, 예배의 본질, 교회의 정치 참여, 상처받은 성도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폭넓게 다룬다. 그러나 목적은 교회나 목회자를 공격하는 데 있지 않다.

저자가 책 전체를 통해 던지는 중심 질문은 단순하다. "설교에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설교에 복음이 실종되고, 설혹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은혜보다 규칙을 앞세우고, 섬김보다 권위를 강조하며, 성도의 자유보다 조직의 유지가 중요하다면 과연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저자는 건강한 교회란 교인 수가 많고 재정이 풍부한 교회가 아니라, 회중이 주체가 되어 드리는 예배, 설교에 복음이 선포되며, 리더십과 재정이 투명하고, 인간관계와 갈등 해결 방식에서도 복음의 정신이 드러나는 공동체임을 강조한다.

'회복'을 제안하는 책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의 중요한 특징은 문제 제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자는 교회의 문제를 목회자나 제도의 문제로만 돌리지 않는다. 목회자와 장로, 직분자뿐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평신도까지 함께 자신의 신앙과 교회 생활을 돌아보도록 요청한다. 또한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조개혁과 시스템의 변화도 제안한다.

교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성장 전략을 도입하기보다, 저자는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소식이다.

책읽기 삶읽기



유하정 지음/
규장 펴냄

깨뜨림

아직 저녁으로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날씨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기 좋은 계절이라 불릴 만큼 주위를 둘러보면 형형색색의 가을꽃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가는 계절을 붙잡아 두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세상일이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신적 성숙의 출발일 것이다. 힘껏 움켜쥐고 있지만 해변에서 손에 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힘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며 손에 잡히지 않는 허상을 쫓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을 전해주는 책 한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깨뜨림"의 저자는 유하정이다. 그녀는 스물두 살 여름, '미개적 종족'을 알게 되었다. 평생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볼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무너졌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낯선 민족의 이야기가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다. 평생 선교사로 살기로 결심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셨다. 그의 삶의 한계를 깨뜨리는 질문을 던지셨다. 아무 열매가 없어도, 결혼하지 못해도, 평생 가난해도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고.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까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미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며 현재 남편 김지명 대표와 함께 아크크루 공동 대표로 섬기며, 한국 교회 청년들이 자신의 경계를 넘어 복음이 닿지 않은 땅으로 나아가도록 세우고 보내는 일에 힘쓰고 있다.

책의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지만 깨뜨림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포기하는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 그를 경배한 것처럼 말이다. 저자도 처음 이 사역에 발을 들여 놓을 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기를 내려놓는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다. 자신의 경계와 한계를 깨뜨려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된 시작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책은 크게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역의 지향점의 변화를 정리해 주고 있다. 자신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경험을 통해 열방에 대한 복을 전파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이제는 그 사역에 동참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까지 나아가고 있다. 단계마다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는 것은 저자 스스로 이런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다. 자아가 깨뜨려진 자리에 성령이 역사할 자리가 비로소 생겨난 것이다. 처음부터 신실하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고백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때로는 내 생각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사건들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진행되는 일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메시지는 큰 사고의 전환이자 도전이 될 것이다.

책을 덮으며 현재 사역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사전 준비와 계획 속에 일을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지 불평 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지나고 보면 연단과 발전을 위한 시련이었음에도 아직도 깨뜨리지 못한 자아와 생각 가운데 하나님만 탓했던 어리석은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아직도 깨뜨려야 할 것이 많은 부족한 자 가운데 손 내밀며 웃고 계시는 예수님을 떠올려 본다.



김병모
한국실 로잉선교회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2026학년도 총회신학 신 · 편입생 모집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 정통 보수주의 신학연구원입니다. 정교도적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요람으로서 신학과정을 이수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강의를 중심으로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성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본 총회신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정	모집학과	학제	모집인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주말반, 야간)	8학기	30명	고졸, 세례받은 자 전문대졸자는 3학년 편입가능
	목회학과 (주말반, 야간)	8학기	20명	세례받은 자, 평신도, 사명자
신학연구원	신학과 (주말반, 야간)	6학기	00명	신학부 졸업 및 졸업 예정자 동등학력 소지자
	목회학과 (주말반, 야간)	6학기	00명	
학술원	성경심화과정	2년	00명	목회자, 신대원 졸업자
평신도 성경연구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체계화함, 4학기(1년) 평신도 지도자 과정 후 신학 과정에 편입할 수 있음			
특전	신대원 졸업자는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에 편입 가능 여목제도 있음			

통신과정
1. 시간, 지역,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석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사명자는 통신으로 전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를 거쳐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2. 능력별로 이수하므로 조기에 졸업할 수 있습니다.

365일 언제나 입학가능! 실패, 학비, 나이 학력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오세요!



총장 신혜란 목사

대표전화
062)511-2491
010-3161-2491
http://www.gchongsin.com

원서교부 및 접수처
원서교부 : 광주, 전주, 순천 총회신학
원서접수 : 수시 접수
*전형료는 없음

총회신학의 장점
최고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남 · 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교회개척 및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문의
광주 062)511-2491
전주 063)272-2491
순천 061)751-2491
수양관(곡성) 061)362-2491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56(신안동)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9(금암동) 전남 순천시 중앙3길 4(장천동)